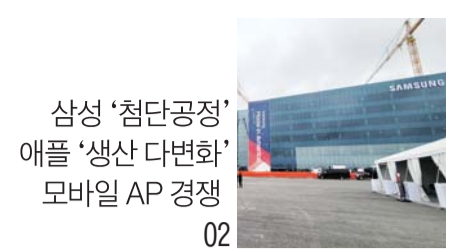


8일 Market Index			
↑ 코스피	7498.00	↑ 코스닥	1207.72
	(+7.95)		(+8.54)
↓ 금리 (미국 3년)	3.569	↑ 환율 (원/달러)	1462.30
	(-0.023)		(+8.30)

metro® 경제



1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스1

파업뎀 국가경제 '흔들' 대만서 반사의익 누리나

삼성전자 초격차의 역설

노사갈등, 경제 전반 변수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세수·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과급 체계 개편을 통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10% 줄면 GDP 0.78% ↓
18일 파업시 영업이익에 43억 영향
협력사 1754곳·지역경제 피해 우려
증권가 일각 "단기적 변수 불과"

삼성 계열사 전체 매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안팎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반도체 수출 기업인 만큼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세수 영향도 피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GDP는 0.78%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K-칩스법) 시행 이후 3년간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는 약 2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 및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의 생산 차질이 법인세 감소와 GDP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일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GDP가 줄어드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손실 규모도 상당하다. JP모건은 18일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인건비 상승과 생산 손실을 합산해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총 영향이 최대 4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초정밀 공정인 만큼 단순 생산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파업 종료 이후에도 라인 재가동과 수율 정상화에 2주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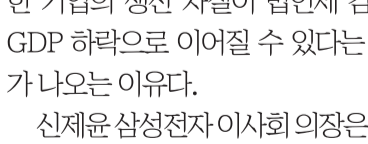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신뢰 위기도 우려된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파업 시 DRAM 생산량이 연간 기준 0.9%, 파운드리·시스템LSI 생산량은 2.4% 감소할 수 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E) 고객사 적격성 검증 일정이 밀릴 경우 어렵게 회복한 글로벌 리더십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증권가 일각에서는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보증권은 "노조 파업과 비메모리 부진은 단기 변수에 불과하다"며 목표주가들을 오히려 상향했다.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도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의 부품·장비 협력사는 1754곳에 달하며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하나당 협력사 포함 약 3만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 이에 파업 장기화 시 파견 인력부터 감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상권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다주택자 양도세 82.5%... 매물잠김 우려

양도세 증가 유예 종료
서울전역·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30%p 가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 부담이 많게는 2배 이상 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이 매물 잠김 현상이 반복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 조치가 지난 9일 종료됐다.

양도세 증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증가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가산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 부활 직전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양도세 증가를 면제키로 하면서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양도 절차는 늦어도 11월까지 마

다주택자 적용세율	현재		증가 유예 종료 시	
	적용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	1주택		최대 80%	최대 80%
증가	2주택	기본세율(6~45%)	기본세율(6~45%)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최대 30%	기본세율+30%p

자료/재정경제부

무리해야 한다.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은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 종료로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7만건을 밀물었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증가 유예 종료일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는 세제 요인에 기반한 매도 유인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매물 출회 속도 역시 둔화될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거래량 위축이 동반되는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세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양도세 증가는 빈번히 매물 잠김을 초래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데이터에 매물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추가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전세난과 금리"라며 "전세 매물 부족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매수로 선회하는 흐름은 경계해야 하며, 주택시장은 금리 등 금융 변수에 대한 민감도도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도 일부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부활을 앞둔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4%) 대비 0.15%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유일하게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



m-커버스토리

7000피 찍었지만 회생·파산 급증 '온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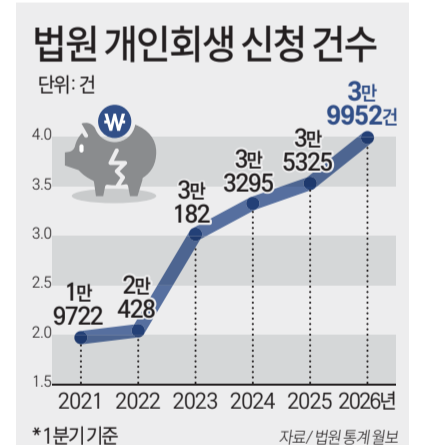
韓 경기 'K자형 양극화'

반도체·대기업 '최대 실적' 속
1분기 개인회생 전년비 16% ↑
'생활비 지출' 파산도 49% 급증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지만 바닥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고물가와 경기둔화,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길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최대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K자형 양극화' 현상이다. 반도체와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차갑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피 지수는 증가 기준 749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6일 장중 7000선을 돌파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련기사 3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 강세와 외국인의 매수세 확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증시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사업 성



는 지난 2021년 1분기 1만9722건에서 2022년 같은기간 2만428건, 2023년 3만182건, 2024년 3만3295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경우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고물가와 경기둔화,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 파산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생활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실직 또는 소득 감소 등이 뒤를 이었다.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소득 기반마저 약해지자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과 개인이 연쇄 도산하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만큼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



메트로 한줄뉴스



▲나경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약탈적 세금 폭탄"
▲김태홍, '위대한 충남'...대한민국 경제 성장 중심 축으로 키울 것 /사진 뉴시스

▲조국, "평택지원특별법 개정할 것...주민이 '일석삼삼조' 느끼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국, '국힘 체로' 내세우면서 민주당에 화살...분열 야기"

▲안구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 준비 문제 없어"
▲"국힘, 분열하면 진다" 박형준, 부산 북구갑 보선 단일화 촉구

모바일 AP 경쟁 치열... 삼성 '첨단공정'·애플 '생산 다변화'

삼성전자 자사 파운드리 생산 확대
첨단공정 기반 엑시노스 성능개선

애플 자체 설계 칩 일부 인텔 생산
일각선 삼성 협력 가능성 관측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공지능(AI) 시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로 다른 공급망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AP 경쟁력도 단순 설계 성능을 넘어 얼마나 안정적으로 칩을 확보하고 생산할 수 있느냐로 바뀌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애플이 아이폰 등 주요 기기에 탑재되는 자체 설계 칩 일부 생산을 인텔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애플과 인텔은 1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탑재될 칩을 인텔이 생산할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뉴스1

애플은 그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 탑재되는 자체 설계 칩을 주로 TSMC에서 생산해왔다. 특히 아이폰용 A P인 A10부터는 사실상 모든 생산 물량을 TSMC에 맡겨왔다. 그러나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TSMC의 첨단 공정 생산 여력이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칩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급 제약 가능성을 고려해 애플이 첨단 칩 생산처 다변화에 나선 것으

로 풀이된다. 미국 애플 CEO 역시 지난달 진행된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아이폰용 첨단반도체 추가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 흐름 속 삼성전자 역시 AP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모바일 AP인 엑시노스를 자사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구

조를 갖추고 있으며 차세대 엑시노스 2800 개발과 함께 첨단 공정 적용도 준비 중이다.

앞서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최첨단 공정인 게이트올 어라운드(GAA) 기반 2나노(나노미터·10억분의1m)를 통해 생산됐다. 해당 칩은 올해 출시된 갤럭시S26 시리즈에 탑재됐다.

후속작인 엑시노스2700에는 기존 모

바일 AP 위에 D램을 올려놓는 구조 대신 AP와 D램을 동일 기판 위에 가로로 나란히 배치하는 구조를 적용해 발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파운드리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지난 5일 애플 경영진이 최근 미국 텍사스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반도체 생산시설을 방문해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양사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 기반 확대와 미국 생산 거점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첨단 공정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모바일 AP 경쟁력도 단순 성능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칩을 확보하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망 대응력 자체가 기술 경쟁력의 일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韓·美, 조선분야 등 산업협력·투자 본궤도

김정관 산업장관 美 주요인사 회동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센터 설립 추진

한미 양국이 조선산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끌어올린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일~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선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 임석 하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미국 현지에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연구개발(R&D), 직접투자 등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센터는 양국간 조선 협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현지(워싱턴 D.C. 잠정)에 연내 설립을 추진한다. 센터는 양국 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니(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과 양국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업간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 센터 설립이 한국조선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과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지법인 설립, 공간 확보,

전문 인력 과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센터를 조기 개소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협력과 함께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한국의 후속 법령 제정 상황을 미 측에 설명하고, 조선과 에너지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협력 진전 상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향후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빌 헤거티(Bill Hagerty) 연방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전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이슈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조선업계, 자동화 기반 실적개선 속도

복합공정 등 적용 확대... 성과 이어져

조선업의 자동화가 미래 투자를 넘어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안착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 여겨졌던 스마트야드 구축이 공정 효율화와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며 실제 영업이익 개선으로 연결되는 흐름이다.

10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조 1409억원, 영업이익 1조 35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2%, 57.8% 증가했다. 회사는 자동화 기반 생산 효율 개선이 친환경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후판 가격 안정과 맞물리며 수익성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HD현대삼호는 용접 로봇 도입으로 작업 강도를 낮추고 생산성과 인력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협동 로봇 용접 공정은 2셀 기준 작업 시간은 로봇(15분)이 작업자(13분)보다 길지만, 일일 작업량은 작업자 25~30셀 대비 로봇 45~50셀로 확대된다. 일정한 품질과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도 절단·조립·용접을 통합한 '러그 자율 제조 공정'을 통해 기존 수작업 대비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 같은 현장 자동화는 HD현대의 '미래 첨단 조선소(FOS)' 프로젝트와 맞물려 고도화되고 있다. HD현대는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를 병행 도입해 생산 공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회사는 엔비디아, 지멘스와 협력해 오는 2028년까지 전 공정 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생산성 30% 향상과 건조 기간 30%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현장에서 자동화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거제

조선소에서는 인력 1명이 용접 로봇 3대를 동시에 운용하며 생산 효율이 약 3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LNG선 화물창 인바(Invar) 평면 자동 용접도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

한화오션은 '십야드 4.0' 프로젝트에 오는 2030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자해 실내 용접 자동화율을 현재 67%에서 100%로 높이고, 공정별 자동화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필리핀조선소에도 스마트야드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자재·공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연간 생산 능력을 1~1.5척에서 최대 20척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중공업은 배관 공정을 중심으로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배관 설계부터 물류, 가공, 용접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파이프 로보랩'을 가동하며 스펙 제작 자동화에 성공했다. 설계 자동화 플랫폼 'S-EDP'를 통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오는 2030년까지 설계 자동화율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 용접 로봇과 이동형 로봇 개발을 병행하며 자동화 범위를 생산 라인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생산성 개선은 원가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납기 단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조선업은 인도 지원 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조기 인도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일정 단축 역시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현규 국립장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단순 작업은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됐고 향후 복잡 공정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건조 기간 단축이 수익성에 직결되는 만큼 자동화는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효과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



경영학계 "성과급 체계 제도화 논의해야"

>> 1면 '파업엔 국가경제...'서 계속

지난 7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과 지역 주민의 협조가 있었음을 고려해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파

격적인 주시 보상과 연봉 체계로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내부 불만이 장기화될 경우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 달려 있는 만큼 인재 이탈은 단기 생산 차질보다 더 치명적인 장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경영학계 전문가는 "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매해 반복되는 노사 갈등 리스크가 줄고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이번 협상을 통해 노사 상생기금 조성 등 협력업체와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상생 모델을 정립한다면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오는 11~12일 사후조정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지금이야 가장 쌀 때”... 코스피 7500 앞두고 빚투 35조 돌파

대출이 떠받친 랠리

마통 잔액 3년4개월 만에 최대
요구불예금 줄며 머니무브 조짐
60대 이상 신용용자 증가율 최고
VKOSPI 60선 넘나들며 불안 고조
대차거래 잔고 급증에 과열 경고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은행 예금·대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머니무브’와 급락 후 반등한 주식시장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실적이 워낙 좋으니 단기 조정을 거치더라도 오를 거예요. 반도체를 믿어요.” 20년 동안 반도체 한 우물을 판 15억 원어치 모아온 자영업자 김모(70)씨 얘기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1억원 어치 추가로 샀다. 김씨는 “증시 조정기에도 주가는 덜 떨어지고 꾸준하게 이익도 나니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 가장 쌀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가 투자한 삼성전자의 덩치는 1600조원대로 불어났다. 자산가뿐이 아니다. 올해 동학개미(개인투자자)도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코스피더 7500선에 바짝다가

서며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곳곳에선 과열 경고등도 함께 켜졌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변동성 지수는 급등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 집계 결과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5조5072억원이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돈을 말한다. 올해 들어서만 8조2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과도하게 늘어난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대표적인 시장 과열 신호다. 증시가 추락하면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뉘는 확대하는 요인도 된다. 빚투 증가세는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지만 고령층일수록 확대 폭이 컸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NH·KB·삼성 등 국내 5대 증권사 기준 지난해 10월~올해 3월 60대 이상의 신용용자 잔고 증가율은 33.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9.1%), 40대(28%), 20대(15.2%), 30대(14.3%) 순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

로 불어났다. 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이다. 4월 말(39조7877억원) 이후 불과 3영업일 만에 7152억원 불어났다. 이 같은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3년 1월 말(40조5395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5월 들어 3영업일 간의 통계지만, 증가 폭(+7152억원)은 월간 기준으로 2023년 10월(+8726억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요구불예금도 계속 줄고 있다. 5대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696조511억원으로, 4월 말(696조5524억원)보다 513억원 감소했다. 지난 4월에도 3조3557억원 줄었다. 이는 은행권 자금 일부가 증시 주변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가능성을 엿볼수 있다.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지난 8일 60.53을 찍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5일 장중 83.58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가 7000선을 단숨에 뛰어넘자 다시 60선을 넘나들고 있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향후 30일간 증시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한다. 통상 20~30 수준을 안정 구간, 50을 넘어가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증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상승장 속에서도 시장 체력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도 선행 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는 8일 기준 178조16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일에는 1809조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110조9229억원) 대비 62.8%, 3월 말(133조5739억원) 대비 35.2% 급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시는 뛰는데 생계는 벼랑... 카드론 43조 ‘역대 최대’

서민경제 경고음

내수·자영업 부진에 온기 확산 제한
생활비 부담 커지며 개인파산 늘어
먹거리 물가 상승에 서민 체감 악화
원가 부담 커져도 가격 전가 어려워
증시와 현실 경제의 괴리가 심화된 배경에는 코스피 상승세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반면 내수 중심 업종과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시상승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생활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5.7%,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1.4%로 뒤를 이었다. 물가와 이자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서 개인 채무자가 버틸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 늘어나는 생계형 대출 회사원 이모씨(37)는 최근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월급만으로는 치솟은 식료품비와 주거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다. 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단기 대출이었지만,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러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7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이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민의 가장 큰 부담은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채감물가 상승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 올랐다. 특히 서민의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물가지

수 품목 가운데 쌀 가격은 같은 기간 17.7% 상승했고, 돼지고기와 달걀 가격도 각각 7.3%, 6.7% 올랐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들은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드론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원가 부담에 흔들리는 자영업 온라인 생활용품 판매업을 하던 김모씨(41)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매출을 믿고 사업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경기 둔화

와 소비 침체가 이어지며 재고 부담이 커졌고, 광고비와 물류비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됐다. 결국 월 수입 대부분을 이자 상황에 쓰게 된 김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1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수부진 장기화로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월 1.9% ▲2월 2.5% ▲3월 4.1%를 나타냈다.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 확대에도 소비 침체로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발자국마다 심이 되는 섬!

울릉도의 여행은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속을 직접 걷는 경험입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초입... “非반도체 가서 댄 만스피 간다”

〈코스피 1만포인트〉

꿈의 7000피 시대

전문가가 본 현재·변수는?

코스피지수 7500선을 넘나드는 등 전례없는 ‘불장’을 연출하고 있다.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은 지수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메트로경제가 10일 국내 주요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하나·KB·메리츠·대신·IBK투자·신영·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인터뷰한 결과 8000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만스피(코스피 1만포인트)’ 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10명의 센터장들은 ▲인공지능(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한국 반도체의 실적 개선 ▲상법 개정 및 자사주소 등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칠천피 일등공신은 반도체’... 반도체 초호황이 여는 ‘만스피 시대’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반도체의 압도적 영향력이다. 이번 상승장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AI, HBM, 메모리 가격 상승, 그리고 실적 상승이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의 60% 이상 이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서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모멘텀 확산과 반도체 호황, 2분기 실적 기대를 이번 랠리의 배경으로 꼽으며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급증이 당분간 시장 기대를 지탱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상승장을 두고 “잘 나가는 종목들이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코스피 8000선 돌파는 물론 장기적인 ‘만스피’ 시대 진입을 내다보고 있다. /따능이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코스피 영업이익 60% 이상 ‘반도체’ 非반도체 업종 간 선순환 이뤄져야 상법개정 등 제도 변화 필요성 강조

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에도 코스닥을 포함해 올해 들어 추가가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1000개를 넘는다는 점에서, 지수 상승과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률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실적 개선 속도가 추가 상승을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도 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펀더멘털은 너무 강한 반면 밸류에이션은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7.6배는 경기순환 산업 비중이 큰 한국 시장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2026년 사상 최대 실적과 2027년 영업이익 1000조원 돌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한국 증시의 12개월 예상 ROE가 19.5%로 대만과 유사한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P/B는 1.7배에 불과해 대만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R이 각각 5.8배와 5.0배에 불과해 글로벌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박연주 센터장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업체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1만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이서훈 센터장은 코스피가 7000대 후반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AI와 반도체 모멘텀이 더욱 확산되고 피지컬 AI 재평가가 강화되면서 버블 장세가 전개된다면 1만 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반도체만으로는 1만포인트 달성이 어렵다고 봤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영업이익도 올해 45%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반도체와 비반도체 업종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지수의 추가 레벨업이 가능하

다고 설명했다. 윤석모 센터장은 한국 기업의 이익 안정성이 유지되고 반도체 외 산업의 장기적인 이익 모멘텀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주 센터장은 미국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인프라, 바이오, 로봇, 방산, 전력기기, 콘텐츠 등 새로운 성장 산업의 부상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피지컬 AI와 2차전지, 원전, 건설 등을 유망 분야로 꼽았다.

실적과 함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제도 변화다.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확대, 배당 강화, 중복상장 규율 강화 등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할인 요인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됐다.

이진우 센터장은 이사 주주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자사주 매입·소각, 중복상장 규율 강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영곤 센터장은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황승택 센터장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시장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한국 시장의 위상을 높일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스피 1만은 단순한 가격 목표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 구조가 정착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 하반기 첫 시험대... 유가·금리·AI 투자 둔화 여부가 관건

낙관론 속에서도 하반기는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만큼, 실적 기대가 둔화되거나 거시 환경이 흔들릴 경우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서훈 센터장은 여름까지는 반도체 호황과 2분기 실적 기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8~9월부터 경기 심리와 반도체 투자 센터멘트가 피크아웃 가능성에 언급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차익실현 가능성도 변수로 꼽았다.

김학균 센터장은 반도체 이익 추정치 상황이 멈추거나 하향 전환되는 시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웃돌며 급등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경고 신호로 제시했다.

낙관론 속 하반기 중요 변수 8~9월부터 반도체 피크아웃 가능성 11월 美 중간선거·고유가 등 변수 실적 추세 유지 확인하며 대응해야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고유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유가 급등은 기업 마진, 환율, 소비심리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우 센터장은 빅테크의 AI 설비투자(CapEx) 증가 추세와 반도체 가격 상승률을, 이영곤 센터장은 HBM과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지속 여부를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꼽았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숫자를 예단하기보다는 실적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감안하되,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와 ETF를 중심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많았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하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품고 유통업 재도전

식품 생산부터 식탁까지 ‘수직계열화’ 전국 293개 오프라인 점포망 확보 SSM 시장 도전·이미지 쇄신 등 과제

하림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전격 인수했다.

이로써 하림은 생산과 가공, 물류에 이어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확보하며 ‘식품의 생산부터 식탁까지’ 있는 수직계열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 2012년 NS마트 매각 이후 14년 만에 오프라인 유통업에 재도전하는 하림이 유통 시장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의 허가 아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권을 인수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인수 금액은 약 3000억원 규모다.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부채 약 1000억원대 중반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홈플러스 측에 직접 지급되는 현금 120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하림은 전국 약 300개(293개)의 오프라인 점포망을 손에 넣

게 됐다. 특히 전체 매장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하림이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신선식품 및 가정간편식(HMR)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하림은 그동안 전북 익산의 식품 생산 단지에 1500억원을 투자해 첨단 물류센터 ‘FBH(Fulfillment By Harim)’를 건립하고, 신선 직배송 플랫폼 ‘오드 그로서’를 론칭하는 등 물류 혁신에 집중해 왔다.

이번에 인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 293개 점포 중 223개(76%)는 이미 쿠팡커머스 배송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2021년 쿠팡커머스 도입 이후 연평균 60%대의 매출 성장세를 유지해 온 인프라다. 이번 인수로 쿠팡이츠와 마켓컬리가 수년간 공동으로 구축한 도심 라스트마일 배송망과 비슷한 규모의 거점을 한꺼번에 손에 넣게 되는 셈이다.

하림은 자사의 ‘더미식’, ‘푸드버디’ 등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이들 거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C2C(Cut to Consume)’ 모델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NS쇼핑의 온라인·모바일 역량과 오프라인 점포의 지리적 이점이 결합하면

강력한 온·오프라인 통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SSM 시장은 온라인 유통의 급 성장과 소비 둔화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SSM 4사(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매출은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 중인 브랜드를 인수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림은 낙인 찍힌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포 리뉴얼과 물류 체계 정비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하림은 과거 2006년 ‘NS마트’를 설립하며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했다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2012년 이마트에 사업을 넘기면서 오프라인 유통에서 사실상 철수한 전력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림이 14년 만에 오프라인 유통업에 다시 발을 들인 것은 식품 제조와 유통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라스트마일 배송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번 인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



metro

SKT, ‘에이닷’ 기능 확장... 유료화 속도

투자 일정·CU 할인행사 등 확인

SK텔레콤이 ‘에이닷’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연내 유료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면서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에이닷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하나증권의 투자 일정과 편의점 CU 할인 행사 등을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독 캘린더’ 기능을 추가했다. 향후 LG전자, 올리브영까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가족케어 서비스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에이닷 서비스 유료화를 공식 선언했다. 대상 범위는 연산 기능을 요구하는 에이닷노트와 실시간 받아쓰기에 한정했다. 다만 가입자가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시장 평가로 인해 시기가 늦춰졌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원인이 됐다. 그동안 구글 제미니와 엔트로픽 클로드 등 글로벌 생성형 AI 모델 19종을 제공해왔으나, 올해부터 AI 모델 연동 수를 대폭 축소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그래픽처리장치(GPU) 연산 비용과 외부



에이닷 로고. /SK텔레콤

모델 사용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데이터 센터(AIDC)를 제외한 AI 분야는 역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450억원을 기록한 것. AI 클라우드,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에이닷 등 AI B2B·B2C 사업이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확대만으로는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 회선은 약 5740만개로 보급률 100%를 넘어섰다. 차세대 B2C 수익 모델을 새롭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LG유플러스도 지난해 통화 AI 서비스 ‘익시오’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가입자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추후 검토로 미룬 상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



metro

“내란 세력 반드시 심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발족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회의, 선대위 체제로 개편 필요시 선대위 인선 추가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청래 대표를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시종 전 충북지사, 안선하 세계보건기구(WHO) 자문관, 대구 출신 외과 의사 금희정 씨, 미안마 출신 귀화 한국인 이본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합류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이연주·황명선·강득구·이성윤·문정복·박지원·박규환 등 7명의 최고위원, 16명의 광역단체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장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은 배우 이원종 씨, 총괄 선대본부장에는 조승래 사무총장, 대한민국 국가정상화본부장에는 한정에 정책위의장, 오뚝 유세단장에는 박주민 의원 등이 각각 임명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대위는 국민에게 더 가깝고 신속하게 다가가는 현장 밀착형으로 구성했다”며 “일 잘하는

지방 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남은 24일 24시간 내내 낮은 자세로 가장 뜨겁게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선대위원장부터 지역 곳곳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승리를 위한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간절한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과 극우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커녕 ‘윤 어게인’ 후보 공천까지 시도했다”며 “내란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준동할 수 없도록

청산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매주 월·수·금요일에 여는 최고위원회의를 선대위 체제로 개편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식 첫 회의는 오는 11일 열린다. 아울러 필요시 선대위 인선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 추가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저희들이 내란 극복,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선대위원장을 한 명 더 모시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에게 선대위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완곡하게 여건상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서 (안 말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日 다카이치 방한 조율... 셔틀외교 재가동

한일 정상, 중동전쟁 대응 등 논의 오는 19~20일 안동서 회담 유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이달 중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상은 중동전쟁 공동 대응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로이터통신·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2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장소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이 유력하다. 정부 측이 올해 초부터 안동에서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은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 차원으로 보인다. 셔틀 외교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가는 외교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를 적극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14일 나라현 호류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스1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하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양국이 원유 수입을 중동에 상당 부분 의존

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원유 등 관련 물자 확보에 힘을 합칠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고위당국자들이 지난 7일 서울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 외교·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은 전체 원유의 93%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원유의 69%를 이 경로로 들여온다.

19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하면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여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가 험악해진 상황이라 핵심광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만큼, 경제 안보 협력 의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용외교를 토대로 대중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에 호응하는 일본과 대중 기조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건이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연석 원내대표가 10일 부산 북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박민식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박 후보 등과 손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박민식 지원 나선 국힘... 한동훈과 대비

지도부·중진 의원들 대거 참석 한동훈 개소식은 지역 주민 중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연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10일 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했다. 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대항 빌딩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박민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식 후보는 “땀방처럼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들이 북구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 이것은 북구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경상도 말로 알로 보는 것”이라며 “가짜 북구 주민,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

민,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김재원·조광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권영세·김기현·나경원·안철수·이헌승·조배숙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자리에 함께했고, 부산 지역구 의원인 정동만·박수영·백종현·곽규택·서지영·조승환·주진우 의원도 참석했다.

같은 시간 도보로 10분 가량 떨어진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의원들 대신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당초 한 후보의 개소식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후보가 주민들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박 후보의 개소식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 후보는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한 명씩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 후보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와 얼마 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서병수 전 의원(전 북갑 당 협위원)이 함께했다. /서예진 기자

오세훈, 정원오에 재차 양자토론 촉구

“주택 문제 집중 논의하자” ‘서울교통 대전환’ 공약 발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재차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정 후보 측에 촉구한다”며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 좋다. 그쪽에서 원하는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을 동의할 테니 양자 토론을 조속한 시일 내

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서울 시민들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주택 문제”라며 “주택 공급 문제, 주택 가격 안정 문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대출 제한, 세금 중과를 방법론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을 심층 토론함으로써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양 후보의 생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오 후보는 이날 ▲교통 대동맥 연결(지하철 노선 확대)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 ▲기후동행패스 도입 ▲첫차·막차 자율주행 버스 확대 ▲더 센 따릉이 등이 담긴 ‘이동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서울교통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교통 대동맥 연결’은 20조8000억원을 투입해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북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대표 교통 복지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도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전환해 혜택 범위를 넓힌다.

청년, 고위험·장기 투자 유리... 중년, IRP 등 절세상품 활용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② '노후 재테크' 세대별 전략

“노후에는 재테크를 지양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노후도 불안해진다.”
 “모든 세대가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나서야 한다. 공적연금만으론 생활수준 지속이 어렵다.”

100세대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노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역대급 불장'에도 재테크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한 쪽에서는 적극적인 위험자산 투자를 권장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을 부각한다.

견해는 엇갈리지만 '노후 재테크'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됐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취급된 정기예금(1년물, 단리)의 취급금리 평균은 연 2.8%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예·적금 만으로는 1인당 3억원 안팎의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어렵다. '노후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 상품이나 제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합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 청년세대, '장기 전략' 필요

은퇴까지 20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20대·30대 청년세대라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이나 펀드 등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품을 장기 보유해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단, '레버리지' 등 파생상품은 보유 과정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을 직접 운용

	ISA	연금저축	개인형IRP
목적	투자및 목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가입요건	19세 이상 (소득있는 15~18세 가입가능)	제한없음	소득이 있는 사람
취급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의무가입기간	3년 (최장 5년 유지)	5년 이상 유지 연금 수령 시 10년 이상, 수령기간 길수록 절세혜택 증가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청년형: 4000만원, 총 2억원)	두 상품 합산 연 1800만원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가능	제한적(출산, 질병 등 요건)	
투자가능 상품	국내주식, 펀드, ETF, 리츠 등	펀드, ETF, 리츠	펀드, ETF, 리츠, 예금, 국고채
투자제한	제한없음		위험상품 70% 이하

청년세대 파생상품 전액손실 유의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출시예정

중년세대 위험-안전자산 분배해야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세금 2배 주의

은퇴이후 고배당주 중심 투자전략 월배당 ETF상품 등도 고려해볼 만

한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우선 개설해야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발급하는 ISA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 연 200만원(기본형 기준)의 투자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형 ISA'가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ISA와 비교해 납입한도(연 2000만원·총 4억원)가 설정됐으며, 세제 혜택도 연간 100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청년형 ISA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본인의 투

자성향 등을 고려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적립도 고려해야 한다. 납입액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펀드·리츠·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연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규모는 최대 4455만원에 달한다. 단, 연금형 상품인 만큼 조기 인출은 불가능하다.

◆ 중년세대, '자산 리밸런싱'

은퇴가 다가오는 40대~60대의 중년세대라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지속하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균형을 맞춰 분배하는 '리밸런싱'을 진행해야 한다. 자산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면 손실 발생 시에도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유동성을 확보하면 조기 퇴직을 비롯한 불확실성에도 대응할 수 있어서다.

또한 투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재테크 규모가 늘어난 중년 세대라면 연금저축·IRP·ISA 등 절세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을 활용해 절세 규모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ISA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금액의 10%(1회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만큼, 하나의 ISA계좌를 5년까지 유지하기보다는 3년 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최근에는 중년 세대에서의 이직도 잦아진 만큼,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에도 유의해야 한다. 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시 적립금이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지는데, 이를 해지하고 일시 수령하면 연금 형태로 수급했을 때와 비교해 최대 2배의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입해야 한다. 장기 요양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형IRP를 유지하고, 적립액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퇴에 앞서 국민연금의 납입 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올해 만 50세가 된 1976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금액)는 2.6배(25년 수급 기준)다. 퇴직이나 휴직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납입기간을 늘리고, 여유가 있다면 60~64세에도 '임의계속납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 은퇴 이후, '현금 흐름' 확보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토대로 삼고,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사적연금과 은퇴 이전에 확보한 축적한 금융자산을 더해

적절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노년기에는 의료비용 등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만큼 고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면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고배당주는 주가 대비 연 배당률이 5% 이상인 주식으로, 기대수익률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다. 특히 배당 시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주식을 혼합해 투자한다면 매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 투자가 번거롭거나 부담스럽다면 주요 증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월배당 ETF상품도 고려할 수 있다. 월배당 ETF는 해외주식에 분산 투자해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만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국내 시장에 상장돼 판매되는 만큼 매매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안전자산은 중도 해지가 어려운 예·적금보다는 환금성이 높은 국채나 지방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국채·지방채 수익률이 3%(1년물 기준)를 넘기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중인 만큼, 수익률 면에서도 채권이 은행 예·적금을 앞질렀다. 10년 미만의 단기 국고채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전문가(PB)는 "노후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해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연령대나 소득 수준, 자산 규모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번주 전국 9개 단지서 5404가구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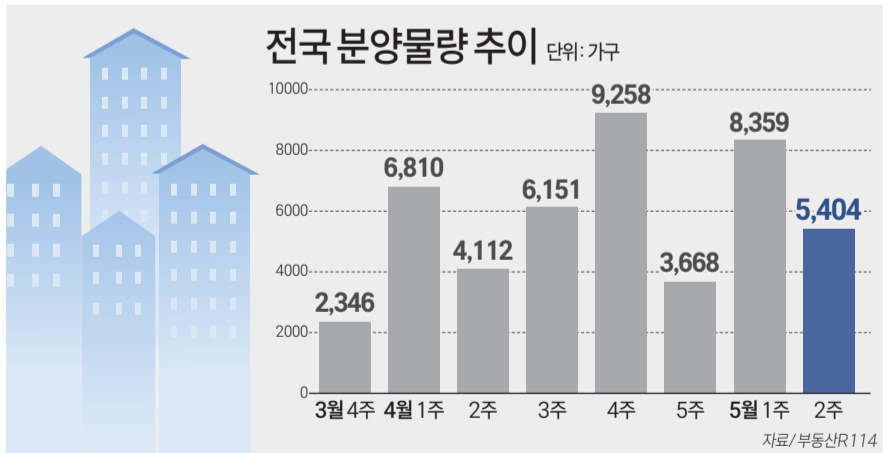
분양 캘린더

고덕국제신도시수자이풍경채 등 호반써밋풍무II 등 6곳 모델하우스

5월 둘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540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4166가구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청약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수자이풍경채' ▲충남 공주시 금흥동 '공주월송진아래히' ▲경남 창원시 자산동 '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 등에서 진행된다.

BS한양·제일건설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14블록(1단지), Abc-61블록(2단지)에 '고덕국제신도시수자이풍경채'를 분양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670가구다.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456가구 규모다. 지하철 1호선 급행이 정차하는 서정리역이 가깝고, 단지 인근으로는 고덕국제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간선급



행버스체계) 노선이 조성될 예정이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도 인접해 차량이동이 편리하다. 도보 거리에 민세 초·중, 송탄고를 비롯한 유치원·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로데오학원가도 위치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그란테르' ▲경기 김포시 사우동 '호반써밋풍무II' ▲부산 북구 구포동 '두산위브트리니뷰구명역'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에 '두산위브트리니뷰구명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8개동, 전용면적 74·84㎡, 총 839가구 중 28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 부산 지하철 2호선 구명역을 비롯해 도보 약 10분 거리에 KTX구포역·지하철 3호선 구포역이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중앙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와 낙동대로를 통한 부산 도심 및 외곽 이동이 편리하다. 구포초와 가람중을 도보통할 수 있다. 낙동강과 인접하고 대저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등 대규모 수변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안성미 기자 smahn1@

가맹점 고금리 대출 금지 '제2 명륜당' 차단

금융위·공정위 정책자금 이용 부당대출 구조 대응

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금리 대출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저리의 정책금융자금이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접근을 제한하며,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등 감독 회피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식당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인 명륜당이 연 3~6%의 저금리로 조달한 정책자금을 연 12~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에 활용한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8곳의 가맹본부가 정책자금대출을 활용해 가맹점

에 직·간접대출을 제공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15곳은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3곳은 고금리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 사례로 다뤄진 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비용 등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대상 기준인 총자산 100억원·대부잔액 50억원을 넘기지 않도록 자산 규모를 쪼개 정황도 적발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향후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공급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자금 공급을 제한하며,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상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롯데케미칼, 고부가 사업 본궤도 1분기 1000억 이상 적자축소 기대

매출 5.1조, 영업손실 203억 전망
고부가 제품 중심 체질개선 성과
중동전쟁 추이·수 공급과잉 등 변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롯데케미칼이 고부가 제품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분기에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전망인 만큼 향후 고부가 사업 확대가 수익성 회복을 이어가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오는 11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에프엔가이드는 롯데케미칼의 올해 1분기 매출을 5조1562억원, 영업손실을 203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가량 증가하고 영업손실은 약 1063억원 줄어드는 수준으로 적자 폭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실적 개선은 저가 원재료 투입과 제품 가격 상승이 맞물린 레깅 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첨단소재 부문도 실적 회복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 등 전방 산업의 재고 축적 수요가 살아난 가운데 기능성 소재 판매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전남 울진산단에 약 3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컴파운딩 공장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일부 생산라인의 상업 가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 이후 연간 생산능력은 50만톤 규모로 확대된다.

울진 공장에서는 고부가합성수지(ABS)와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 등 스페

셜티 제품이 생산된다. 롯데케미칼은 향후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Super EP) 등 제품군을 확대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까지 소재 적용처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중장기적으로도 범용 사업 축소와 고부가 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범용 사업인 기초화학 비중을 40% 미만으로 낮추고 첨단소재와 정밀화학, 전지소재, 수소 등 미래 성장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기초화학 부문에서는 사업 재편도 병행되고 있다. 롯데케미칼 대산은 HD현대케미칼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수 사업 역시 구조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범용 사업 효율화로 확보한 투자 여력을 첨단소재와 정밀화학, 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등 성장 사업에 재투입해 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밀화학은 고부가 식의약 소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테트라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TMAC)·테트라메틸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TMAH) 중심의 반도

체 케미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전지소재는 AI용 회로박과 하이엔드 전지박 제품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수소에너지는 합작사 롯데SK에너루트를 중심으로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고부가 사업 확대와 사업재편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동 정세 안정 이후 유가와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역레깅(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이익 감소 현상) 부담이 나타날 수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분기에는 레깅 효과로 손실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고부가 제품 확대 흐름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범용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스페셜티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이어진다면 실적 개선 흐름도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타이어 3사, 중동사태에도 1분기 실적 질주

한국타이어 영업익 5070억... 43% ↑
넥센타이어 사상 최대 분기매출 달성
금호타이어 북미·유럽 중심 실적방어

국내타이어 3사(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가 올해 1분기 중동사태 여파에도 고인치 중심의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에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원자재와 물류비 인상 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타이어 브랜드 1위인 한국타이어는 1분기 영업익 50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 증가했다. 매출은 5조3139억원으로 7.1%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3724억원으로 19.3% 늘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5657억원으로 9.3% 늘었고, 영업이익은 4375억원으로 31.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7.1%를 기록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와 유럽·한국·중국에서 교체용 타이어 판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넥센타이어는 1분기 매출액 8382억원, 영업이익 542억원으로 분기 매출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8.7%, 매출액은 33.1% 증가했다. 넥센타이어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흐름과 유럽 공장 2단계 생산 체계 안정화와 기존 거래선 확대 및 신규 고객 확보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화재 여파로 인한 생산 차질에도 1분기 매출이 1조1678억원으로 전년 동기 3.2%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14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3% 늘어났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신차용(OE) 및 교체용(RE)

타이어 수요가 동반 성장한 것이 1분기 실적 방어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타이어 3사는 수익성 확대를 위해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아이온과 벤투스 등으로 승용프리미엄 시장 선점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 투어링 AL31'로 중장거리 시외·고속버스 프리미엄 타이어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프리미엄 SUV 전용 타이어 '그루젠 GT(장거리 고속 주행) 프로'를 출시하고 글로벌 SUV 타이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1분기 고성능 타이어 '엔페라 스포츠'와 올웨더 타이어 '엔블루 포시즌 2'를 유럽·미국에 이어 국내 시장에도 출시하며 프리미엄 수요 공략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타이어 핵심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운임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해상운송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2월 말 1333.11포인트에서 지난주 1954.21로 42%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문제"라며 "실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이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격 인상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것"이라며 "원가 절감과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 대응이 하반기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KAI, 항공 교통망 구축 '맞손'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개발 MOU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미래형 통합 항공 교통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2021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조성을 위한 기술·인프라스트럭처 협력 추진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 현대차·기아 본사에서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 및 KAI 김중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개발을 위해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그룹의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 개발 역량과 KAI의 항공기체 개발 역량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는 기술적, 인적 자원 공유는 물론 향후 공급망 및 인증, 고객 네트워크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미래 항공 모빌리티 전문법인, '슈퍼널'과 KAI가 공동으로 AAM 기체를 개발하고, 현대차·기아항공파워트레인사업부



지난 8일 현대차·기아 양재동 본사에서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왼쪽)과 KAI 김중출 사장이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서 개발중인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해 협력한다. 또 양사는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신규 협력 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AAM 시장 진출하며 선도적인 위치를 이어가고 있는 한화그룹과의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AAM 분야에 적용할 수소연료전지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는 KAI와의 협업은 우리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큰 힘"이라며 "안전하면서도 매력적인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선보여 모빌리티의 지평을 하늘길로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류재철 "이기는 실행 집중... 일등 LG전자 목표"

(LG전자 CEO)

류 CEO, 구성원 직접 소통 나서
'품질·비용·납기' 경쟁력 재건 강조



류재철 LG전자 CEO가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탄운출 미팅에서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LG전자를 위한 '리인벤트 2.0'을 발표하고 있다. /LG전자

"문제를 드러내고 이기는 실행에 집중해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일등 LG전자를 만들자."

10일 LG전자에 따르면 류재철 LG전자 CEO는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한 탄운출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처음 마련한 이번 미팅은 전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 앉아 회사의 방향성과 조직문화 변화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류 CEO는 이날 기존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리인벤트'를 '리인벤트 2.0'으로 재정의하며, 문제를 드러내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식의 조직 혁신을 강조했다. 문제 드러내기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저 없이 이를 드러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다.

류 CEO는 "같은 사안이라도 관점에 따라 개선의 기회가 되기도, 반대로 현실 안주가 되기도 하는 만큼 변화는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는 실행하기는 '이기는'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전 성수기와 안정적인 전장 수요 잔고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2분기에는 및 하반기에는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에 따른 유가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글로벌 수요 변동성 확대 등이 경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회사는 주력 사업별 수요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 맞춤형 판매 전략과 공급망 운영 효율화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류 CEO는 실행의 해법으로는 '품질·비용·납기'에 해당하는 근원적 경쟁력 재건을 들었다. 사업의 본질인 제품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AX로 속도를 높이고 제조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많은 위기를 지나 여기까지 온 LG전자의 혁신 DNA와 저력을 믿고 모두의 작은 변화를 모아 LG전자의 미래를 바꾸자"고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풀스택 개발력 앞세워 'AI 챗봇·K-POP 팬덤' 시장 공략

도전! 스타트업UP

이동수 제네시스네스트 대표

'개발자 90%' 바탕 SW외주로 출발 창업 3년 만에 매출 100억원 돌파 SI 약순환 속 영업이익 20~30% 달성 아이도 믿고 쓰는 AI 서비스 개발 엔터사 팬덤업 구축 지원사업 확장 "올해 매출 200억 가능"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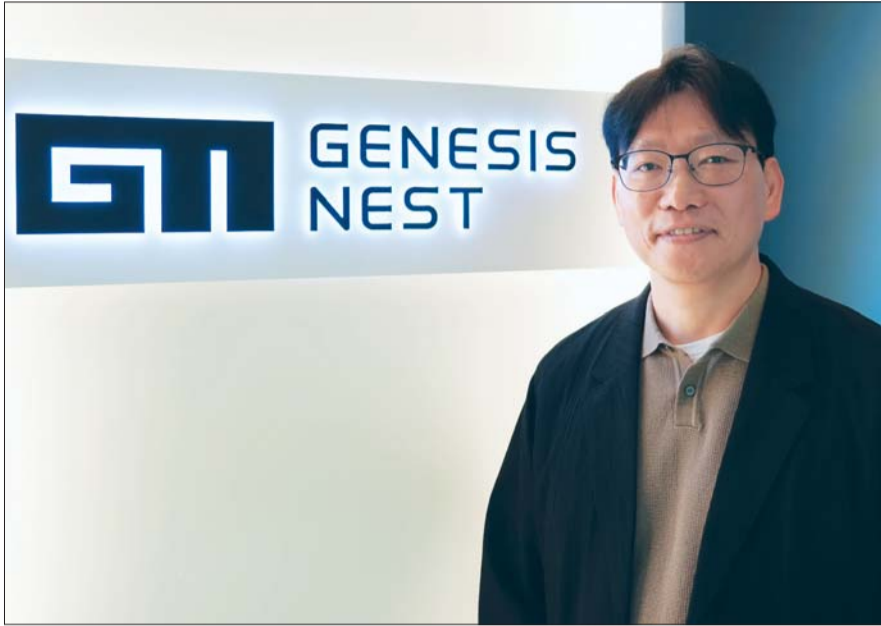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면 회사는 망한다.'

임직원 전체의 90% 이상을 개발자로 구성하며 안정적인 SI(시스템통합) 사업을 토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캐릭터 챗봇 서비스, K-POP 팬덤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창업 1년 만에 흑자 전환, 2년 만에 손익분기점(BEP) 달성, 3년 만에 매출 100억원 돌파 등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제네시스네스트(GENESISNEST)가 그 주인공이다.

"뭘 보고 투자하세요."

이동수 제네시스네스트 대표가 창업 초기 회사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를 외부에서 126억원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이동수 제네시스네스트 대표가 경기 용인에 있는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회사에 18억원을 투자해 준 투자자들에게 처음으로 던진 말이다.

"개발자인 내가 투자를 알 턱이 없었다. IR도 몰랐다. IR을 하는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처음 한 것이다. '너는 개발자 같지 않아'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개발자가 회사를 설립할 때 직원들이 따라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다."

NHN에서 게임 부문 기술 총괄 등을

거친 이동수 대표는 회사 동료였던 서버 플랫폼 개발팀장, 클라이언트플랫폼 개발팀장, 플랫폼 사업부장 등 자신까지 총 5명이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해 2022년 5월2일이었다.

첫 해 매출은 고작 5000만원이었다. 이 대표가 이끄는 제네시스네스트의 초기 투자자에는 김동신 샌드버드 대표, 파이브라크 등을 창업한 노정석 대표, 넥슨 최연소 대표를 역임한 서원일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게 든든한 시드 머니가 됐다.

이대표는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에 집중했다. SI라고도 불리지만 우리 다른 외주회사와는 다르다. 백엔드, 프론트엔드, 앱, AI, 서비스, 플랫폼 기획까지 풀스택 역량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웃었다.

5명으로 시작한 인원은 어느새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115억원을 기록했다. 창업 3년여 만에 매출은 230배, 인원은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 사이 제네시스네스트의 고객은 현대차, 카카오(다음), 더블랙레이블, LS엠트론, 아모레퍼시픽, 하나투어, 오늘의집, 스마일게이트 등으로 늘었다.

이대표는 "SI 분야는 약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가격 후려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좋은 인력을 쓰지 못한다. 영업이익률이 고작 7~8% 수준이다.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20~30% 정도로 높다. 90% 이상이 개발자여서 가능한 일이다. 영업인력이 없다. 내가 영업을 한다. 대부분의 SI 회사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지 못한다. 우리는 못하면 못한다고 한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덧붙였다.

제네시스네스트는 탄탄한 소프트웨

어외주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최근엔 챗봇과 팬덤 비즈니스까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나도 애를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자극적이지 않은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나만의 AI 친구 '꼬미'다. EBS와는 AI 학습 도우미 '푸리봇'을 개발하고 있다. 푸리봇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AI 학습 도우미다."

회사는 팬덤업·커머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사가 자사의 아티스트를 위한 팬덤업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K-POP 팬덤 플랫폼 FAN-G'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면 별도의 대규모 개발 인력,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팬덤업을 빠르게 선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삼성이나 LG와 같은 회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상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속도라면 올해 매출은 보수적으로 봐도 200억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올해 5년차인 제네시스네스트는 현재 무한질주 중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변화를 기회로"... 中企 성장·상생 해법 모색

제38회 중소기업 주간 전국서 개최 17개 시·도서 총 83개 행사 진행 AI 전환·소상공인 재도약 논의

제38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83개의 중소기업 행사가 펼쳐진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 행사는 '성장'과 '상생'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성장과 관련한 행사로는 지난 7일 '창업생태계의 구조적 전환 심포지엄'이 열린데 이어 'KBIZ 소상공인 재도약 솔루션'(14일), '중소기업 신 성장 동력, AI 전환(AI) 확산정책 토론회'(18일)가 예정돼 있다.

'상생'과 관련해선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제,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명회'(12일),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 나눔 콘서트'(27일)가 열린다.

중소기업인의 가장 큰 축제인 '202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회에서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지역에선 ▲광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12일) ▲충북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13일)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13일) ▲전북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14일) 등이 예정돼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성장률이

회복세에 있으나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상생 환경 조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상생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국민은행,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김승호 기자



현대L&C

고급 바닥재 시장 확대 내구성 강화한 '아르톤'

습기 따른 뒤틀림·변형 최소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가 고강도 주거용 바닥재 '아르톤(Artone·사진)'을 출시했다.

10일 현대L&C에 따르면 아르톤은 천연석과 고분자수지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만든 바닥재로, 내구성과 내수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또한 현대L&C의 특수 공법을 적용해 습기로 인한 뒤틀림과 변형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아르톤은 표면 내구성도 강화했다. 일반 제품 대비 3배 수준인 두꺼운 표면 보호층을 적용했으며 현대L&C가 자체 개발한 'AMT(Anti-mold and Durable Technique) 실드' 특수 코팅까지 더해 생활스크래치나 마찰에 강하다. 천연 대리석 무늬를 본판 패턴 12종으로 출시했으며 규격은 직사각(470×940mm)과 정사각(600×600mm) 2종이다.

현대L&C 관계자는 "아르톤은 고급스러운 스톤 패턴 인테리어나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SK에너지, 고유가에 주유소 지원 나서

직영 제외 전국 2500곳 대상 매월 최대 200억 규모 지급

고유가 장기화로 주유소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SK에너지가 전국 SK주유소 유통망 지원에 나선다. 석유제품의 최종 공급 거점인 주유소 운영난을 완화해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SK에너지는 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국내 2500여 개 SK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및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SK주유소의 운영 부담을 덜고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주유소는 에너지 업황 변동성이 커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 /SK에너지

지면서 최근 2개월 동안 80여 개 주유소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기간은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인 2026년 3월 13일 0시 이후 발생분부터 향후 최고가격제 종료일까지다. SK에너지는 이르면 이달 중 첫 지원금 전달을 마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바이어 문의부터 수출계약까지 돕는다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참여 모집 무역전문가 1대1 무료 지원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대응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무역전문가의 1대1 밀착 지원을 통해 바이어 구매 문의 유효성 검증부터 거래 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수출 실무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 문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자체 발굴한 해외 바이어 문의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 지원 사업이 상품 소개 페이지 제작부터

바이어 발굴과 매칭까지 일괄 지원이라면, 이번 사업은 이미 바이어 문의를 확보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한 실무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중진공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에 입점 또는 입점 예정인 기업이 다. 미입점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선정 후 회원가입 및 상품 등록을 완료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의 구매 문의를 확보했음에도 실무 경험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11월 말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총 1000개 사 내외를 모집하고 기본요건 및 결정사유 등에 대한 서류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